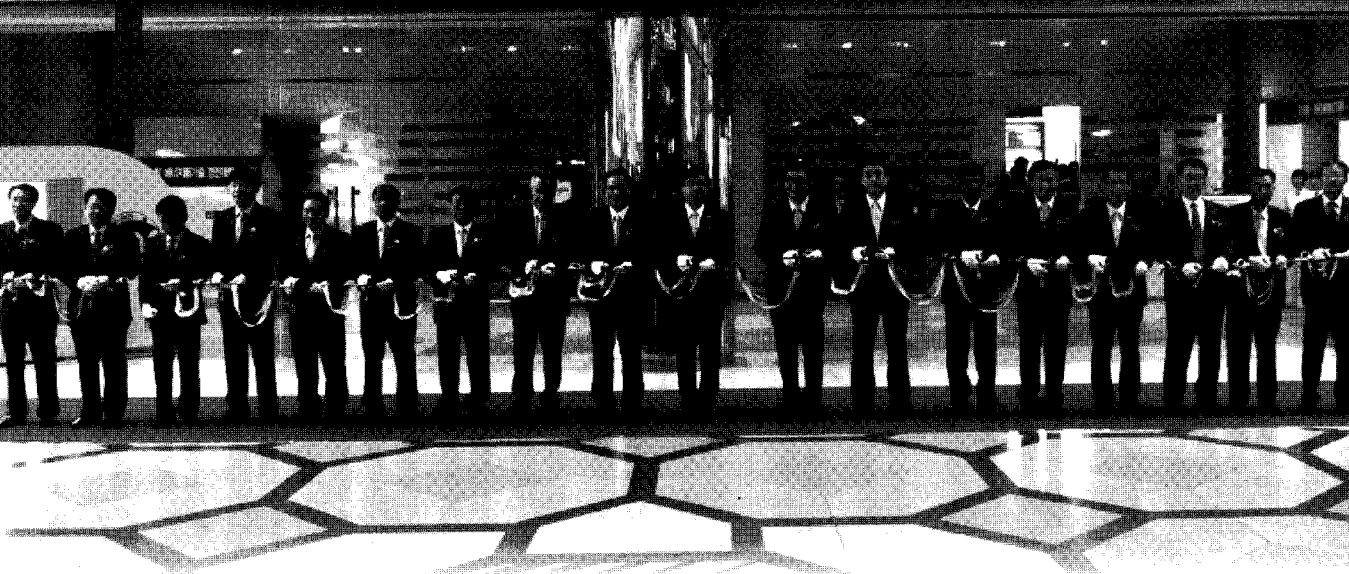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10.13



2009 KOREA GREEN ENERGY SHOW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2009. 10. 13(화) ▶ 10. 16(금)

新에너지 첨단기술 · 제품 ‘눈길을 사로잡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대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녹색 에너지대전의 첫 날인 13일 개막식에는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준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내빈들이 개막기념 테이프 커팅을 했다. 내빈들은 이후 전시회장 곳곳을 둘러보며 출품된 국내외의 최첨단 에너지 기술 및 제품을 관람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이벤트로 전시회에 출품한 업체들이 이웃사랑 캠페인 참여로 모금된 금액을 전달하는 사랑의 내복

기증식이 열려 참관자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올해 에너지신기술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에너지대전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덴마크 등 총 12개국 145개 업체가 참가했다. 신재생에너지관, 저탄소 산업기기관, 그린에너지 생활제품관, 녹색 정책 기후변화대응관 등 4개 대주제관 및 녹색수송관 등 4개 특별테마관을 중심으로 총 587부스가 전시돼 역대 최고의 규모를 이루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 등 국내 대기업들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



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부대 행사로 마련된 그린컨퍼런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및 CDM, 에

너지효율향상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총 22개 대세션, 82개 세부세션의 세미나가 진행돼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 4개 대주제관 구성

이번 전시회는 테마별로 나눠 △그린에너지생활제품관 △저탄소 산업기기관 △신재생에너지관 △녹색정책 기후변화대응관 등 총 4개의 대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이곳에는 고효율콘덴싱보일러, 하이브리드 스쿠터, 산업용 고효율보일러, 건물용 연료전지, 태양광발전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지열히트펌프, 그린오피스 모델하우스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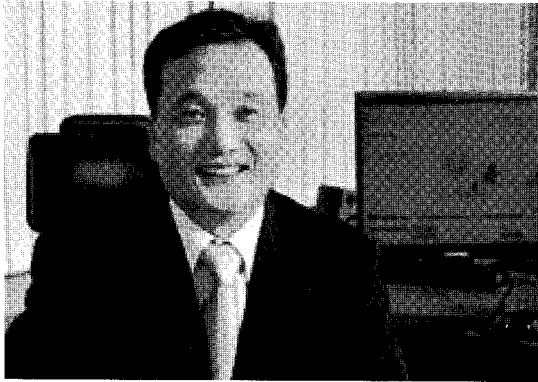
주요 전시제품들을 살펴보면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와 리튬전지를 사용해 3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스쿠터, 80%의 부품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2MW급 풍력발전기, 무려 5만 시간이란 긴 수명과 기존 형광램프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소로 친환경성을 자랑하는 LED형광램프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았다. 이와 함께 스테인리스 열교환기 관체 사용으로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자동적응제어 기술로 온도 널뛰기 현상을 해결하는 콘덴싱 보일러 등도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총 4개 대주제관의 출품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57개 업체, 그린에너지활제품 29개 업체, 녹색정책 기후변화대응 16개 업체, 저탄소 산업기기 11개 업체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열풍이 국내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 다양한 세미나와 부대행사

전시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미나이다. 나흘간의 전시회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및 CDM, 에너지산업 분야와 관련돼 총 22개 주제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주요 세미나 주제로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2010년 태양광 시장 전망 및 투자동향 분석 △연료전지 개발 기술동향 및 전망 세미나 △2009년도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 고시개정 및 정부구매 관련 설명회 △Post-2012 프로젝트 배출권 체제의 방향과 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열병합발전 정책·기술 설명회 등이 마련돼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분야별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 및 추진 전략, 정책 등의 정보가 제공돼 에너지 관련 기업임직원 및 신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 등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체의 수출 지원 및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또한 국내 산·학·연에서 개발한 각종 신기술, 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올해 신기술에너지경진대회에서 최종선정된 우수 신기술에 지식경제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병행됐다.



▲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

●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1973년 석유파동을 기회로 1975년 ‘연료 사용 기기전시회’ 라는 이름으로 첫 전시회가 개최됐다.

국내외의 새로운 에너지관련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에너지절약기기의 개발· 보급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달성하자’ 는 취지로 올해 29회째를 맞았다.

초기에는 가정용 보일러가 주요전시품목이었으며, 가정 건물 산업부문에 이르는 국내외 에너지기기 및 기술의 총집합행사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절약·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 및 제품 등이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시규모와 출품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最高)이자 최고(最古)의 그린비즈니스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고 말했다.

전시회를 찾은 산업체 관계자와 일반시민들에게는 녹색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출품업체에는 자사 우수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는 마케팅의 장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업체와 바이어 유치를 확대해 2010년 전시회를 신재생에너지 특화전시회인 ‘Renewable Korea전’ 을 포함

한 국제 전시회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종합전시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 올해 전시회의 포인트는.

G8, APEC 등 세계 주요회의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우선 방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 이어 ‘제5의 에너지’ 로 불린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소비부문별 에너지효율과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실질적인 에너지총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에너지효율 부문을 대폭 강화해 산업과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게 에너지절약형 제품과 기술을 대규모로 전시한다. 145개 출품업체중 46%에 해당하는 67개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주요업체들과 제품을 소개하면.

태양열발전과의 결합으로 연간 기름사용량 1㎡당 1.5L를 실현한 1.5L 주택 단열재, 기설치된 단열재 위에 추가설치가 가능한 블랭킷 타입 단열재, 그린홈 및 그린오피스 모델하우스가 전시된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CO₂ 배출량, 대기전력을 0.009W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계 등도 볼거리다. 또 최고속도 130km/h의 고속형 전기자동차, 직접메탄을 연료전지와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스쿠터, 전기자전거 등 첨단 차량들이 소개된다.

■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는데.

산업발전과 사회공헌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걸음 다가간다는 행사취지를 더했다. 26개 출품업체들이 이웃사랑 캠페인에 동참해 3000벌의 내복을 전달하는 ‘사랑의 내

복 기증식’을 개막일에 가졌다.

또 전시기간 중 출품업체들이 ‘축하화환 대신 연탄 받기’를 전개한다. 우리공단은 취업 정보 코너를 운영해 일자리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 참가업체

